

기술이 만든 편리함, 고객이 체감하는 감동 서비스 현대건설 스마트홈 서비스

현대건설은 나날이 진화하는 스마트홈 기술과 다양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 위상에 걸맞은 입주민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를 비롯해 초개인화된 생활 편의 기능부터 국내 최초 자율 주행 로봇 배송 서비스까지, 한층 진화한 스마트 라이프를 실현하며 주거 브랜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위한 스마트 플랫폼

현대건설은 나날이 진화하는 스마트홈 기술과 다양화되는 주거 서비스를 고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가 강화된 입주민 전용 토탈 서비스 플랫폼을 론칭했다. 이 가운데 힐스테이트 입주민을 위한 '마이 힐스'는 입주 전 분양이나 청약 정보부터 입주 후 A/S, 홈 IoT, 커뮤니티 사용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에 따른 힐스테이트만의 특화 서비스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된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과 밀접한 세밀화된 서비스로 '나에게 딱 맞춘 집'이라는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을 배려한 스마트홈 기능

조명이나 가전기기를 모바일과 차량에서 제어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 따른 자동화 모드가 탑재되어 취침이나 외출 시 홈네트워크로 연동된 스마트 기기들이 일괄 실행된다. 생활과 밀접한 세심한 서비스도 특징이다. 선호하는 주차공간 알림이나 전기차 충전 현황까지 모바일로 체크할 수 있으며, 방문자 초대 기능을 통해 지인의 차량도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감동을 더하는 입주민 전용 생활지원

'H 헬퍼'를 이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배수구 막힘, 못 박기 같은 불편 해소부터 청소나 세차 같은 생활지원 서비스, 에어컨 필터 교체 같은 정기관리까지 누릴 수 있다. 특히 디에이치 전문 인력이 단지 내에 배치되어 입주민의 요청과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디에이치 전용 입주관리 시스템인 'H. BLACK, 엄선된 전문 업체와의 특별 제휴로 구성된 프리미엄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기존의 디에이치 고객 서비스가 희소성과 고급화된 서비스로 특별한 혜택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는 기술력 기반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까지 반영한 케어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세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입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와 감동을 제공할 예정이다.